



재가 종무원의 '위치' 는?

고려시대부터 사찰에서 고용하던 노복을 정인(淨人)이라고 불렀다. 사찰노비제도가 없어진 후에는 스님이 아닌 사람으로 절에 의탁하면서 스님들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했다. 정인은 사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지만 급여를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부터 사찰에서 급여를 받고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재가종무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재가종무원은 운전기사, 공양주, 부엌 등 사찰의 사무원과 사무장 등 종무행정직, 그리고 건축 및 공사 등을 담당하는 일용직 등 다양한 일을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계약에 따른 정식 직원이라기보다는 일용직급직 정도의 처우를 받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고학력 전문 인력이 재가종무원으로 유입되면서 신분보장에 대한 요구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재가종무원의 신분보장은 원하자는 동안 인격적으로 일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사찰이 고용주체가 되고 종무원이 피고용인이 되는 고용계약과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지소임이 정기적으로 교체되고, 재정이 불안정한 사찰에서 종무원의 신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인력에 대한 신분보장은 사찰과 불교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종무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문성은 업무의 숙련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과 불교전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스님과 신도들 모두가 종무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종무원이 사찰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해진다.

사찰의 종무원은 단순 기능적 수준에서 벗어나 스님을 보좌하여 사찰관리 및 전문 포교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는 매우 복합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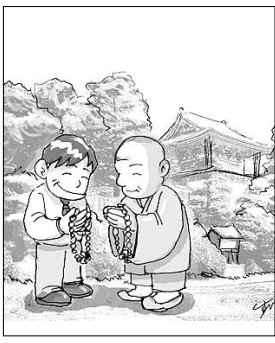
종단 차원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종무원들이 해당 분야에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종단은 종무행정과 포교, 상담, 문화재 관리 등 여러 영역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되고 종무원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종교조직은 신도들의 보시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신도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무원이 필요하다.

크게 본다면 사찰의 고용 주체는 신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무원의 신분보장과 전문성은 노사관계와 같은 고용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서의 필요성과 구성원의 인식 전환, 그리고 노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다.

김용철(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고학력 전문인력 역할 증가세 발전의 한축·신분보장 분명히

집중점 - 조계종 포교사제도 '허점' 많다

오는 10월 실시되는 포교사 고시를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불자들이 많다. 그러나 막상 포교사 고시를 통과해 포교사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현장 포교 활동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포교사 중요성 인식공유 부재, 교육시스템 미비, 종단적 지원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행 포교사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뭘까?

#현황과 문제점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사단이 지난해 조사한 '포교사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03년까지 배출된 포교사는 총 7000여명으로, 연간 300여명의 포교사가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배출되는 포교사 중 실제 포교현장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는 2054명(2003년 기준)으로 3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포교사 자격을 갱신한 기준포교사까지 모두 합쳐도 3000여 명이 안되는 적은 수치. 또한 활동 역시 사찰안내와 군부대·교도소 활동 등에 집중되고 있다.

D 포교사의 경우, 인근의 사찰에 거사법회를 이끌며 포교활동을 하려 했지만 주지

스님과 사찰 신행단체들이 "재가불자가 어떻게 재가불자를 가르치냐"고 강력히 반대해 결국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 불교학생회를 이끌고 있는 Y 포교사 역시, 포교활동을 원하는 사찰과 포교단체가 없어 사비를 들여가며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어렵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꼽힌다.

는 요소로 꼽힌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포교사들은 "포교사들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포교사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포교사들에게는 '재가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녀 사찰

포교사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 불교적 소양들을 포교현장에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현장실습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포교사단이 포교사 사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교대학 교육의 연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역시 필수 이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30% 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종단이 포교사를 배출하고 자격을 관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포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종단 산하에 포교사 전문교육기관 등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포교사를 양성,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포교사 활동 내역에 따른 활동비를 별도 지급하고, 각 포교계층별 포교방법 연구와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포교사단은 적은 인력과 재정으로 그 동안의 활동을 유지·관리하기에 급급해, 포교방법 연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포교활동이 강조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포교활동은 염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경 기자

활동여건·공간 없어 '장롱자격증'

'재가자가 법문을?' 외면 일쑤...지원도 미비 지위확보·재교육·관리시스템 등 대책절실

다. Y 포교사는 "현장 경험이 없는 포교사들을 교육시킬 교육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포교사들이 포교활동 자체를 꺼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도 포교사 활동에 따른 보수체계 부재와 포교사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 미비 등도 포교사들의 활동을 저해하

이나 각 포교단체에서의 활동에 적잖은 제약을 받아왔다. 따라서 종단 내에서부터 포교사 제도에 대한 취지와 중요성 등을 인식하고, 각 사찰과 포교단체의 연수교육 때 포교사 활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교사를 적극 활용한 사찰에 대해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주어 포교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승특별교구법 입법예고

30일까지 조계종 홈페이지 의견 수렴

군대 내의 포교업무를 담당할 군승특별교구 설치를 규정한 조계종 '군승특별교구법'이 7월 5일 입법 예고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법안을 7월 30일까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게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군승특별교구 설치법은 이 과정을 거친 뒤 중앙승가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군승특별교구법에 따르면, 군승교구는 국방부 원광사에 교구 중무소를 두고 군승과 군사찰, 군신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한다. 군승교구 주지는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종도 이상의 비구 가운데 군포와 원력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승은 일반 스님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지만 복무 기간 중 혼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 및 피선거권은 복무기간 동안 제한된

다. 또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 과정을 거쳐 선발, 종무원장이 파송과 소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신도들의 근본도량으로 삼는 군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통일하여 호칭하고 분담금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최고 심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는 군승교구 주지 추천, 군승 인사 및 상벌, 군승 자원의 선발과

교육, 군포교 예산과 사업계획 편성, 군사찰 분담금 납부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구성은 군승교구 주지를 당연직 의장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스님과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중감실 선임 군승 4인, 군승회의에서 선출한 6명의 군승 등으로 짜여지도록 했다. (02)2011-1895

박봉영 기자

본말사 주지 연수 시작

조계종, 7일부터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가 7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권 스님들을 대상으로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시작했다.

올해 주지연수는 '주제별 심화교육'이 처음으로 시도됐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교과목을 배정하지

않고 연수 참가자가 환경, 상담, 자원봉사, 상좌제, 문화기획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 연수는 충청권(7월 14-15일), 대구·경북권(22-23일), 부산·경남권(28-29일), 호남·제주권(8월 4-5일) 순서로 진행된다. 조용수 기자

실정에 심경 특보에 현담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에 심경 스님이, 사서특보에 현담 스님이 7월 5일자로 각각 임명됐다.

심경 스님(사진)은 1969년 사미계, 73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75년부터 불림사·만기사·반야사 주지, 2000년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대승종 총무원장 혜심스님 14일 취임

제9대 대승종 총무원장 혜심 스님(홍천 실상사)의 취임식이 7월 14일 오전 11시 성남 분당 뉴타운웨딩홀 5층에서 열린다.

이날 취임식에서 혜심 스님은 종단 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작고 알찬 종단' 실현 △종지종풍 진작 △지역교구 재정비 등의 중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중앙총무원관을 해산한다'는 중징 도합 스님의 유

시로 내분을 겪어왔던 대승종은 5월 비상종도대회에서 혜심 스님을 새 총무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종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봉영 기자

혜림스님·이재창 교수 동국대 새 이사에 선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현해) 신임 이사에 중앙승가회의원 혜림 스님(사진 위·정대 스님 후임)과 동국대 이대총 명예교수(사진 아래·서든 각 이사 후임)

가 각각 선임됐다. 그동안 유희를 거듭하던 동국대 재단이사회는 7월 6일 임원 7명의 출석으로 성원이 이뤄졌으며, 2명의 신임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신입 임원 선출과 교육부 교비환수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 교육을 자산 매입(필동 중대부속 병원), 2003학년도 결산 승인 건등도 일괄 처리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4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수강생 전원 장학 혜택(무료) 2년제 야간강의

대원불교대학은 동국제강(주) 창업주이며, 불교방송 개국의 모태인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이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불교 대중화의 원력에 따라 전액 장학 혜택을 주는 불교계 최초의 교양대학입니다.

1. 모집과정

과정	학과	모집인원	과정	학과	모집인원
대학	불교학과 통신과정	30명 내외 00명 내외	대학원	불교학과	05명 내외

2. 대학원 지원자격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미 수료자는 대학과정 과목을 이수해야 함)
- 면접 기술테스트에 의해 학업 능력이 인정되는 자. (학사학위 미취득자)

3. 대학 지원 자격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 신도오계 수지자. (미 수지자 수계 서약서 제출)

4. 전형일정

- 원서교부: 2004년 5월 17일 ~ 8월 10일까지
- 원서접수: 2004년 5월 20일 ~ 8월 13일까지
- 대학원 전형일: 2004년 8월 14일(토) 14:00시
- 합격자 발표: 2004년 8월 18일 (개별통보)

5. 전형방법

- 대학과정 (서류 전형 후 합격 발표일 개별통보)
 - 대학원과정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 일 시: 2004년 8월 14일 (토) 14:00시 - 장소: 본 대학 강의실 (단, 학사학위 미소지자는 학원 계획서를 토대로 면접하여 수험능력을 평가함)

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 수계증 사본 또는 수계 서약서.
- 학업 및 연구 계획서 1부 (대학원 과정)
-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대학원 과정)
- 전형료: 대학과정 20,000원, 대학원 과정 50,000원
- 전형료 납부: 국민은행 098-01-0230-530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7.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생은 전액 장학 혜택이 주어짐.
- 월 2회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처리.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합격 취소. (통신과정도 전원 참석)

8. 각 과정 졸업 사항

과정	학과	사정내용
대학	불교학과 통신과정	출석 과제물 등의 학업 평가에서 과목 낙제가 없는 자 학업 평가 서술 시험을 통과한 자
대학원	불교학과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졸업논문 심사 과정을 통과한 자

9. 대학원 과정 특징

- 개인지도교수제 (Tutorial System)를 통한 철저한 개인별 지도를 합니다.
- 지도교수 인솔로 해외불교학술답사를 통하여 세계불교학의 흐름을 접합니다.
- 대학원 과정 졸업자는 미래불교학회 임회 자격이 부여되며,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정의 수련 과정 이수 후, 법사자격을 부여합니다.

10.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 및 대학원 과정 모두 해당)

- 일 시: 2004년 8월 25일 (수) 오후 6시 - 장소: 대원불교대학 큰 법당

11. 전임 교수진 및 담당 교과목

- 장학회 교수 - 부산대학교 회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대학원 석사,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석·박사과정 졸업.
 - 지도과목: 정토사상, 화엄사상, 중국불교사상사, 한국불교사상사 등
- 허경우 교수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석·박사과정,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학교 박사 과정 수료.
 - 지도과목: 인도불교사, 구사학, 경전성립사, 대승불전강독 등
- 김사업 교수 - 서울대학교 영문학 졸업, 동국대학교 석·박사과정 졸업, 일본 국립경도대학에서 인도철학 연구.
 - 지도과목: 중관학, 유식학, 여래장사상 등
- 김종욱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박사 과정 졸업.
 - 지도과목: 비교종교학, 불교와 철학, 불교윤리학, 현대사회와 불교 등
- 최봉수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과정 졸업.
 - 지도과목: 불타론, 초기불교연구, 초기불전강독 등

12. 정규교과과정

1 학기	2 학기	3 학기	4 학기
<불교학개론> <불교개론>	불타론 <초기불교>	<조기불교> <불교경전성립사>	초기불전강독 대승불전강독
비교종교학 <종교의 사회>	비교종교학 <불교와 사회>	비교종교학 <중국불교사상>	<한국불교사상>
정토사상 중관학	화엄사상 유식학	<중국대승사상> <여래장사상>	<한국대승사상> <여래장사상>
<사찰문화특강>	<포교방법론>	불교의식	법회연습

1) <초청특강> 불교현장과 연계된 교과들로 과목당 2회 이상 4회 이하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습과 답사위주의 현장교육으로 학기 중 주말이나 방학 중에 실시된다.

<본 강의의 과목은 대학과정 과목임>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02)773-9171, 754-1613 FAX 02)771-6796 www.idaewon.or.kr